

목어

패러디

'패러디'가 뜨고 있다. 가수 서태지와 한 음식가수 사이에는 '패러디 노래'로 소송까지 가고, 유명인이나 영화장면을 패러디한 광고며, 인터넷상에는 남의 주장이나 글을 비꼬는 패러디 논설도 등장했다. 사람들은 이를 '패러디 중후군'이라 하는데...



패러디(parody)에는 역설(paradox)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예술작품을 풍자와 익살로 뒤집어 보는 그야말로 역설적으로 원작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진실을 내 보여주는 예술의 한 장르다. 그리스 때도 있었지만 장르로서는 17세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가 중세기사도 전설을 통해 패러디한 것이라 하지 않겠는가. 서양 17세기 전후라면 중세부터의 권위와 권력들이 아직 거만함에 젖어 있었고 그들의 허위에 찬 권위가 마침 그 수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여서 어쩌면 '패러디'는 당시의 사회적 요구였을지 모른다. '위선과 거짓의 권위 있는 곳에 패러디 있다' 인 것이다.

17세기 이후 '패러디'는 한 번도 그 기세를 누그러뜨린 적이 없다. 요즘 잘 나가는 '누가 내 치즈를 훔쳤는가'는 '치즈 내 것 만들기' 등 여러 권의 패러디 물이 나와 함께 종이값을 올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놀부전' '춘향전' 등의 패러디가 등장, 이제 이장르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왜 오늘에 새삼 '패러디 중후군' 일까.

원래 패러디는 남의 작품을 비틀고 희화화 하면서도 원작에서 맛 볼 수 없는 블랙 유머로 배를 잡고 웃게 하는 가운데 원작 이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감동과 비애를 맛보게 해주는 품위와 철학을 지닌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패러디에는 막가파식이 더러 보인다. '패러디 중후군' 이야 비틀린 이 시대의 당연한 증상이겠으나 품위 잃은 것까지 '패러디'라 이름 붙여 줄 수 없을 것 아닐까.

김경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23년 대립 청산 '한뿌리' 공감

조계종-선학원 관계정상화 '의미'

분종 위기서 한발씩 양보 '합의' 도출 선거권·종무직 취임권 등 현안 남아

23년에 걸친 해묵은 대립으로 급기야 분종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선학원 문제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간 조계종과 선학원의 대립은 이념 갈등보다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계종이 짚은 분규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부 새로 창건된 사찰과 일부 비조계종 사찰이 재산보호 차원에서 선학원에 등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78년 선학원이 정관 제6조 임원의 자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고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비조계종 스님도 분원장이 될 수 있고, 탈 조계종화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확대됐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선학원이 법률적으로 종단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고, 선학원은 변화된 법적 위상을 들어 조계종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서 대립이 계속된 것이다.

조계종은 95년 4월부터 중앙종회 선학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학원 정관에 대한불교 조계종 '명칭 사용, 대한불교 조계종 지지부대' 내용 삽입,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등의 조항을 선학원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학원은 다수의 분원장들이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사를 보여 종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선학원이 조계종의 뿌리이며, 법인 입에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인 인사, 운영, 관리권 등을 침해하려 한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95년 1월 첫 만남이후 두 차례에 걸쳐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합의문중 '조계종 소속 승려의 사찰을 선학원에 등록'이 종헌 9조3항에 규정된 사찰사람 등록의 무에 저촉된다는 등의 문제로 인해 번번히 협상이 결렬되면서 심지어 분종위기까지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지난 8월 30일 만나 강경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관계 정상화 안을 마련한 것은 어느 쪽도 선학원 분종에 따른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계종의 경우 선학원이 떨어져 나갈 경우 조계종의 모체이며 비구승단으로

교 조계종 지지부대' 내용 삽입,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등의 조항을 선학원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학원은 다수의 분원장들이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사를 보여 종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선학원이 조계종의 뿌리이며, 법인 입에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인 인사, 운영, 관리권 등을 침해하려 한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지난 8월 30일 만나 강경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관계 정상화 안을 마련한 것은 어느 쪽도 선학원 분종에 따른 파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계종의 경우 선학원이 떨어져 나갈 경우 조계종의 모체이며 비구승단으로



조계종과 선학원 대책위 스님들이 8월 30일 실무회의를 갖고 관계정상화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서의 출발지점을 잃게 된다는 점과 석주, 진제, 정일, 범행, 성수 스님 등 원로 스님을 비롯, 500여개 사찰과 1천명이 넘는 소속 승려를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선학원도 재산보호라는 현실 문제로 조계종과 결별하는 것은 선 수행에 바탕한 청정성과 불교종단의 역사성을 인정받아 온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30일 양측 실무자들이 만나 자리에서 분종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조계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 공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법안대책위원 간사

인 원담 스님은 "이번에 타협이 안 되면 선학원과 화합이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 종회가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고 했고, 선학원 실무위원회 간사인 동진 스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계종과 선학원이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양측의 위원장이 동반 사퇴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간신히 마련한 이번 정상화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4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임시총회와 6일 열리는 선학원 이사회가 추진해 주어야 한다.

현재 조계종의 경우 별다른 걸림들이 없으며 추진이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조계종-선학원 관련일지

- 1978. 2. 23 임원의 자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변경
1988. 3. 28 종회-선학원대책위 구성
1995. 1. 24 조계종 선학원 첫모임-종단요구안 전달(5개항)
1995. 2. 22 선학원-정관변경 불가 통보
1995. 7 선학원 도제 교육기회 제한
1995. 9. 28 선학원 임원 정계 결의
1995. 10. 5 선학원(이사회-정관개정) 불가 재천명
1995. 11. 8 선학원 독자노선표방 결의
1996. 3. 27 중앙종회-선학원 이사회 정계 결의
1996. 8. 27 종단-선학원 공동발표문
1997. 7. 9 제1차 조계종-선학원 실무회의
1997. 11. 18 총무원-선학원 규제지침 교구본사, 선원, 강원, 교육원에 통보
1998. 3. 14 선학원 분원장 이사회 퇴진 요구
1998. 4. 9 선학원 정관개정 규제지침 요구
1999. 3. 11 조계종 선학원 '다시 대화'
1999. 6. 22 조계종 선학원 합의안 발표
1999. 9. 22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중의부결
2000. 1. 12 선학원(이사회) 단일계단설치 결의
2000. 10. 30 조계종 선학원 대화 재개
2000. 3.5 선학원 정상화' 초안 수립
2001. 6. 25 선학원 승려법 제정법 제정

만 관계 정상화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선학원은 다수의 분원장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던 만큼, 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계종과 선학원이 관계 정상화를 회복하더라도 선거권, 피선거권, 종무직 임명의 관리 제한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도 좁혀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난제가 늘어났지만 이번 관계 정상화 안인 한발씩 서로 양보하여 한 뿌리를 확인한 만큼 자신들의 입장에 얽매어 또 다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안 된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사면 논의 '가속' ... 대화합 기대

조계종 사면운동본부 '청원' 이후

분규당사자들 참회문 속속 발표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운동본부(공동대표 진관스님 등 6인)가 8월 28일 정계 승려들의 대사면을 바라는 청원서 및 탄원서를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제출키로 한 것은 조계종의 화합과 사면을 바라는 종도들의 염원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탄원서 및 청원서와 함께 전달될 서명부에는 19개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한 법랍 30년 이상의 중진스님 1,200여명이 피징계자의 사면복권에 동의하는 뜻을 담고 있어, 지난 8월 21일 통도사 방장으로 재 추천된 월하스님의 98년 종단사태와 관련한 참

회문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조계종 사면 논의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이날 94년, 98년 종단분규 당시 징계 받았던 원로스님(전 원로회 사무처장과 도각스님)전 종회 사무처장이 피징계자들의 뜻을 모아 '사부대중에게 보내는 회고와 반성'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도 분규 당사자들의 사전 참회를 요구해 온 사면 반대 입장 스님들의 마음을 다소 누그러뜨릴 것이라 기대감도 있다.

비록 종단 제도권이 아닌 불교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스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면복권

운동을 벌이는 것은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이번 사면운동본부의 사면 추진은 교계에 공론화 했다는 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면운동본부의 청원과 함께 분규당사자들이 먼저 발로 참회하는 자세를 보일때 대사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인사와 실상사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관행화된 종단 내 폭력문화를 참회하고 평화적인 대중공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참회정진과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면복권운동본부의 이번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경 기자 igkim@buddhania.com

종단차원 '사찰 지키기' 나섰다

전국사찰 방범시스템 추진

조계종 총무원이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도난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찰소장 문화재의 도난과 훼손 방지를 위해 '방범 방화업무에 관한 령'을 지난 7월 제정한 데 이어 산하 전국 2000여 사찰에 방범 시스템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29-31일 방범·방화 시스템 점검을 위한 모의 도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 도난훈련은 도난 방지 시스템의 시범 가동 및 운영을 통해 사각에 맞는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 기준을 점검하고, 도난 사건 발생시 사찰 및 경찰, 방범업체 등의 유기적인 대응방안 마련, '경찰청 문화재 지키기'를 통해 구축한 비상연락망 점검을 위해서다. 방범 시스템 설치는 올 7월 10일 제정, 공포한 '방범 방화업무에 관한 령'에 따른 것이다. '방범 방화업무에 관한 령'에 따르면 조계종 내 모든 사찰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방범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령'은 전국

사찰을 사각에 따라 가군-라군으로 나뉘, 가군은 4개월 이내(예를 11월까지), 나-라군은 6개월 이내(예를 1월), 라군은 9개월 이내(예를 4월)에 열 감지기과 자석 감지기 등 기본적인 방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가군과 나군은 이 영이 공포된 날로부터 각각 1년과 2년 이내에 화상 감시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령'은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특별분당사찰, 관람료 사찰을 가군(7개 사찰 해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280개 사찰은 나군에 해당된다. 전통사찰 및 공사찰은 다군(450-500개), 나머지 1500여 개 사찰이 라군이다.

호법부장 증지 스님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범시스템은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해 규모가 작은 사찰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성보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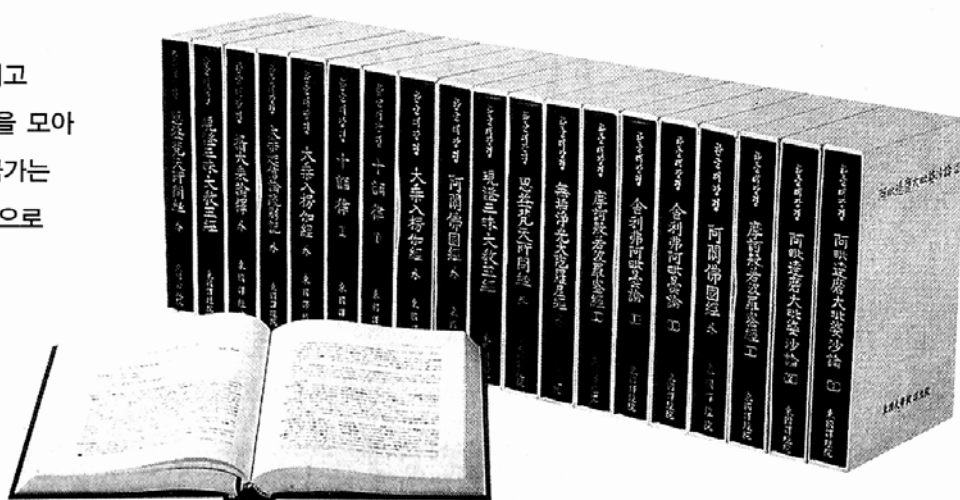
법보 한글대장경 완간

고려대장경, 700여 년 만에 한문의 틀을 벗고 한글로 탄생!!! 장장 37년 만에 이뤄낸 대작불사 한글대장경, 318권으로 완간!!!

한글대장경의 완성은

고려시대, 외적의 침략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고 겨레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민족의 염원을 모아 팔만대장경을 조성한 이래, 그 위대성에 버금가는 업적으로 민족정신의 총화이며, 우리의 유산으로 길이 보존될 현대사의 중요한 공적입니다.

이에 모든 공덕을 이천만 불자와 겨레불이에게 회향하는 성대한 회향법회를 마련함으로써 수희공덕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찰에 불안하면 성보 가정에 불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한글대장경 1권(권당 15,000원):

정가 4,755,000원

동국역경원

구입문의: ☎ 02) 2272-0252, 2275-4391

FAX 02) 2278-4069

결제방법: 신용카드 및 분할납부로 결제하실 수 있어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 소장하신 경전과 분실하신 경전을 날권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